

정화의 작은이들



새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46 호

5 월 형제회 소식

2009 년 5 월 23 일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0 시 - Projector/ 성가
- 오전 10 시 15 분 -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오전 11 시 - 미사
- 오전 11 시 45 분 - 월례회

사부님 영성의 향기 (12)

‘재창설의 해’

봉사자 이선영 하상 바오로 ofs

형제회 소식

- 다음달 월례회는 6 월 27 일(토), 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 오전 11 시 미사 끝난 후 세라나군디 공원(위치 Area 1)으로 각 구역 별로 이동하여 야외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부모님 같은 연로하신 회원님들을 모시고 6 월 6 일(토) 점심식사를 접대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개별 통지
- 지속적인 형제회 발전을 위하여 제 5 기생 지원반 모집(1 차 마감: 6/30)에 많은 추천과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 금년도 연례피정 일정이 사정상 변경되어 8/13 (목), 오후 7 시부터 8/15 (토), 오후 4 시경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강해자 루실라 자매의 아버님이 한국에서 지난 5/18, 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완치와 건강 회복을 위하여...
- 리따 수녀님의 영명 축일이 5/22(금) 이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수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지난 5/14, 터키, 그리스로 성지 순례를 떠난 재속회 회원을 포함한 21 명의 신자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 병환 중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

“작은 자가 되십시오” 그는 이 말을 듣자 불현듯 “나는 이 수도회가 작은 형제회로 불리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그들은 모든 이에게 속해 있는 낮은 자들이었고 항상 낮은 자리를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참된 겸손을 튼튼한 기초로 하였고, 잘 정리된 모든 덕행의 영적 건물들이 그들 안에 솟게 되었다. (1 켈라노 38 에서 발췌)

금년은 성 프란치스코 사부님께서 1209 년 4 월 16 일, 교황 인노첸시오 3 세로부터 회칙과 회를 구두로 승인을 받아 프란치스코회가 창설된 지 800 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총본부에서는 올해를 “재창설의 해”로 정하고, 세계 모든 관구들에게 본질로 돌아가도록 당부했다고 합니다. 800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프란치스코회 가족들은 현재 전 세계에 걸쳐 수 백만 명에 이르는 등 양적 성장은 이룩하였으나 형제애, 공동체 생활, 복음적 가난으로 요약되는 프란치스코 정신의 본질이 다소 쇠퇴하여 초창기 공동체의 가난하고 겸손한 작은 자로 되돌아가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달 4/15 부터 나흘간 아씨시에서 창설 8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 뜻자리 총회에서

교황 베네딕도 16 세는 “이 시대의 프란치스칸들은 점점 무너져 내리는 인류사회의 가치와 전통을 회복 하는데 더욱 힘쓰라”고 당부하시고 “프란치스코처럼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부터 변화되어 세상의 ‘폐허’를 수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프란치스칸들은 하느님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네딕도 16 세 교황님의 말씀을 상기하면 프란치스칸으로서 자부심도 느끼지만 한편으로 막중한 사명감도 깨닫게 되어 다소 행동거지에 부담감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토론토 형제회도 “재창설의 해”를 맞이하여 행정 관계 등 부차적인 문제에 앞서 복음적 삶이라는 본질적인 면에 더욱 치중하며 완덕의 경지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회계 보고

2009 년 4 월 30 일 현재

| 내역 | 전월 이월금 | 월 수입금 | 월 지출금 | 현 잔고 |
|-----------|-----------|----------|----------|----------|
| 회비 | 8,660.64 | 649.35 | 294.22 | 9,015.77 |
| 전교 후원금 | 4,052.93 | 745.00 | 0.00 | 4,797.93 |
| 도서 구입 | 2,784.47 | 140.00 | 0.00 | 2,924.47 |

형제회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삶

권경수 마리아 ofs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축복과 사부님의 평화를 빕니다.

재속 회원으로서 사부님의 영성을 따르는 길은 무한한 영적 순례의 길 입니다.

우선 우리 형제회원으로서의 삶은 회칙과 회헌을 준수하며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지향했던 작음과, 겸손, 순종, 사랑의 삶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덧 서약을 한지도 7 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사부님의 영성을 닮아 가려고 노력하지만 머언 앞날을 내다보듯 미약하기만 합니다. 두 주일전 양성반 모임에 참석하여 형제, 자매님들의 재속회원으로서의 마

음의 준비와 영적 소망의 나눔을 통해 불현듯 깨우침을 얻고 자신을 가다듬어 사부님의 영성을 살아가야 하겠다는 열망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작음의 생활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높은 사람처럼 대하고 존경하는 사랑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섬기러 오셨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마태,20,26-27)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음은 겸손과 바로 연결 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이는 행동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신을 아랫사람, 보잘것 없고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모든 사람의 종, 다른 형제들의 발아래 있는 사람, 주 하느님의 부당한 종으로 부르길 원했습니다. 이처럼 더욱 작음으로 살기 위해서 겸손한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믿음과 신뢰의 확고함 안에서 무조건 믿고 따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과 정의 안에서 믿고 따르며 순종 하는 것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오직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그 믿음을 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도 자기의 잣대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진실한 마음의 눈과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작은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난과 겸손의 모범을 통하여 자신을 비우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작은 형제회가 되도록 갈망하고 최선을 다하여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닮아 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가 모범된 형제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